

申奭鎬선생님이 살아오신길

강 만 길*

1. 폭넓게 학문과 교육에 바친 한평생

치암(痴菴) 신석호선생은 1904년에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면 사곡리에서 신세기용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때 겸산 홍치유에게서 약 10년간 한문수학을 하고 봉화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가 3·1 운동으로 퇴학하고 1920년에 일본 동경에 유학하여 정칙영어학교에서 수학했다. 1년만에 귀국하여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검정시험을 거쳐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중등학교 교비생으로 1929년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사학과(조선사학 전공)를 졸업했다.

졸업과 동시에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의 촉탁에 임명되어 8·15 해방 때까지 수사관보·수사관을 역임했다. 해방이 되자 조선사편수회를 국사관으로 개편하고 그 관장이 되었다. 해방 후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첫째는 국사관의 후신인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한 사료간행 활동이고, 둘째는 고려대학교·성균관대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며, 셋째는 학술원 부회장과 종신회원·문교부편수국장·독립유공자상훈심의회위원 등을 통한 사회활동이며, 넷째는 저술활동이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 국사관장과 국사편찬위원회 사무국장을 맡는 한편, 1946년부터 1966년까지 고려대학교 교수를 겸임하였고, 그 동안에도

* 상지대학교 총장

성균관대학교·동국대학교·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등에 출강했으며, 고려대학교 교수를 사임한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장과 영남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대학교단에서의 활동 이외에 학술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1954년에 제1회 학술원 회원으로 당선된 후 1960년에 인문과학장에 피선되었고 1963년에 학술원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1964년에는 학술원부회장에 피선되었고, 1966년에 종신회원이 되었다.

『경기도사』와 『서울시사』편찬에도 관여했으며, 1958년에는 한국사학회를 조직하여 초대 이사장이 되었고, 1967년에는 한국사연구회 출범에 지도적 역할을 다하고 초대 회장이 되었다. 이 밖에도 국방사학회·홍의장군극망우당기념사업회·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 등 여러 가지 학술관계 단체와 기념사업회 등에 폭넓게 관계했으며, 1961년에 대한민국문화훈장을 받았고, 1980년에는 인촌문화상을 수상했다.

해방 후의 신생국가 건설과정에서 각종 학술관계사업 등을 맡을 기성학자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까닭도 있지만, 근면한 성품과 원만한 인품으로 인해 인문과학분야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활동의 범위는 대단히 넓고 다양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활동보다 연구조성사업에 치중된 학술활동

일제시대 조선의 유일한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에서 조선사를 전공한 제1회 졸업생이면서 일본인 지도교수의 알선에 의해 조선사편수회에서 학문연구와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목적에 의해 편찬된 조선총독부판 편년체 『조선사』 편찬에 관여하게 되었고, 일본인 조선사연구자 중심으로 발간된 『청구학총』에 연구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일제시대의 개인적 학문연구의 대상은 「기묘사화의 유래에 관한 일 고찰」에

서 대표되지만 주로 조선왕조시대의 당쟁사분야였다.

해방 후의 학문적 활동은 우선 쫓겨가는 일본인들이 불태우려한 사료들을 보존하는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패전 직후 일본인들이 조선침략의 비밀이 담긴 기밀기록들을 불태우는 것을 보고, 조선사편수회에 보관되어 있던 대한제국시기의 일본공사관기록 사진원판 44,000여 장을 위험을 무릅쓰고 대피시켰다가 훗날 출판되게 함으로서 학계에 크게 공헌했다.

대학의 강단에 서는 한편 국사편찬위원회 사업을 주관하면서 각종 중요 기본사료를 출간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우리 역사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1955년부터 3년간 『조선왕조실록』 총 48책을 영인 간행하였고, 1959년부터 2년간 『비변사등록』 총 28책을 간행했으며, 1961년부터는 초서로 된 『승정원일기』를 정서하여 간행하기 시작했는데, 정년 때까지 30책을 간행했다.

이 밖에도 1955년부터 『매천야록』 등의 사료를 수집하여 『한국사료총서』로 17종을 간행했다. 이들 발간사업으로 우리 역사, 특히 조선왕조사 연구의 기본사료들이 연구자들의 서재에 비치되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시대까지 몇 질밖에 없어서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조선왕조사 연구의 기본자료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쉽게 연구자 개인의 서가에 비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방 후에도 「독도의 소속에 대하여」 「한말 의병의 개황」 「조선왕조 개국 당시의 대명관계」 등의 논문을 생산했으나, 학술적 업적은 앞에서 든 각종 중요 사료를 간행하고 상세한 해설을 직접 집필하여 학계에 공헌한 점에서 더 크게 구할 수 있다. 『한국사료총서』 해설문들은 모아져서 1964년에 『한국사료해설집』으로 간행되었다.

우리 근대학문의 역사가 이제 1백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일제강제지배시기의 ‘종속적 학문’시기와 해방 후의 민족상잔 전쟁시기를 빼면 실제로는 겨우 반세기 역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조건 아래서도 특히 우

리 역사학이 그 반세기 동안에 상당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의 하나는 국사편찬위원회 사업으로 각종 중요사료가 대량으로 간행됨으로써 연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촌로(村老)처럼 소박하고 인정미 짙은 인간상

3·1 운동으로 봉화초등학교를 퇴학한 후, 소 한 마리 팔아 놓은 집 돈을 ‘흠쳐’ 일본유학을 떠난 것이 16세 때였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에게서 직접 들었다. 상당히 용감한 소년이었던 듯 했지만, 이본 유학 1년만에 돌아와 당시로서는 대학입학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중등학교를 다녀서 검정시험을 거쳐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이후 대학 예과 2년과 본과 3년간을 중등학교 교비생으로서 국내 최초의 대학졸업생이 되었다면, 학문에 대한 열정도 그 만큼 컸음을 말한다. 그 때 경성제국대학에 이공계가 있었으면 그 쪽으로 진학했을 텐데 이공계가 없어서 문과에 갔고, 결국 우리 역사를 전공하게 되었다고 했다.

소관 돈을 ‘흠쳐’ 일본유학을 간 용감한 소년, 모교 장학금으로 국내 초유의 대학을 1회로 졸업한 수재, 문과보다 이공계가 적성이라 스스로 생각한 자연과학자 형의 청년 하면, 흔히 세련된 현실주의자로 인식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 연배들이 대개 그러했지만 선생님도 조훈이었고 부인이 연상이었다. 당시의 신식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은 조훈의 초훈부인과 이혼하고 신식여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은 다복하게 해로했고,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후 얼마 안 있어 따라가셨다.

1960년대 초의 어느 날이라고 기억된다. 원고정리를 도와드리려 서대문 충정로의 댁에 들렀다가 대문 앞에서 허름한 한복차림에 낡은 중절모를

쓴 노인 두 분을 만나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고향 봉화에서 온 선생님의 친구들이었다. 그야말로 보선발로 나와 맞더니 바로 술상을 마주하여 회포를 푸는데, 대학교수는 어디에도 없고 완전한 시골 노인 세 사람의 흥겨운 자리가 되어 원고정리에 지장이 많았다.

지도하는 제자들의 석사나 박사 논문 제목을 정할 때는 거의 간섭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료해석에는 정확성과 치밀성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이나 논지가 설령 당신의 생각과 다르다해도 객관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관대하게 판정했다. 그래야만 새로운 경향의 학문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학자였다고 하겠다.

선생님이 주관한 1960년대의 『사학연구』에 당시로서는 다소 새로운 경향이라 할 수 있는 논문이 게재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약 우리 사학사에 하나의 작은 획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제 학문의 방법론을 고집하거나 간섭하는 학자가 주관하는 연구지에 새로운 경향의 글이 실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래의 동·서·국사를 아우른 학회이외에 우리 역사학 중심 학회가 필요하게 되어 한국사연구회를 만들 때, 누구의 발의였는지 기억되지 않지만 발기인들의 한 달치 봉급을 기금으로 삼게 되었다. 당신은 더 많은 금액을 내면서도 동참하는 제자들의 어려움이 안쓰러워서 “평생을 역사학 덕으로 살터이니 그만한 감당은 해야지”하며 ‘위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지만 제자들의 취직문제라면 발벗고 나서서 최선을 다했고, 네 자녀를 둔 당신의 경제사정도 넉넉할 리 없었지만 사정이 어려운 제자에게는 더러 학비도 보조해 주었고, 훗날 돌려드리면 받으려 하지 않았다. 조금 나이든 제자들과는 술자리도 별 서슴없이 같이 했고 자리에 어울리는 농담도 잘 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제자나 젊은 사람들이 대하기에 편안한 그런 인품이었다.

작고하기 며칠 전 제자 몇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가진 돈이 얼마이니

그것을 역사학계를 위해 써라 하고 유언했고, 그 돈을 기금으로 하여 해마다 「치암학술상」이 주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유고를 모아 1996년에 「치암 신석호전서」 3책을 간행했다(2003. 9. 30).